

**특우 컬럼**

효(孝)

세월이 약인지라 시간이 지나면 잊혀야 하
건만, 5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가 문득문득,
새록새록 그림다. 어머니를 구원한 것으로,
명예권사 직분으로 천국에 가시게 한 것으
로 늘 위로를 삼아보지만, 왜 못해 드리고,
맘 상하게 해드린 것만 생각이 나는지.

어머니 표현대로 예순가, 아순가에게 미친 아들이 안타까워 옷을 찢으며 울부짖던 우리 어머니…. 당시는 그런 어머니가 아속해서 울었지만, 지금은 그것이 어머니의 진한 사랑이었음을 알기에 울컥한다.

나는 성경을 읽다가 우리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진 다윗을 접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형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하나 다윗은 아들을 그리워하며 마음 아파한다(삼하13:39).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압살롬은 결국 아버지를 배반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은 아들을 피해 도망길에 오른다.

그리고 피하고 싶었던 아들과의 전쟁이 터지자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자들에게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삼하18:5)고 간곡히 당부한다. ‘날 봐서라도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부탁은 요압에 의해 묵살되었고, 압살롬은 처형되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은 가슴이 찢어지도록 슬피 울며 애가를 부른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압살롬 내 아들이 내 아들이”(삼하18:33).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아들을 기
다리던 아버지도 그렇다. 아버지는 몰골이
말이 아닌 아들을 보고 ‘그 돈 다 어쨌냐?’
고 묻지 않았다. ‘뭐 좀 깨달았냐?’고 채근
하지도 않았다. 그저 안아주었다. ‘고맙다,
돌아와서.’

피조물이 창조주의 마음을 헤아릴 수 없듯,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어찌 헤아릴까. 그저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듯, 부모님을 공경해야 마땅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자녀들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엢6:1~3).

지식이 가히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다. 인터넷 세계를 찾아 탐험하는 수고도 필요 없이, 이제는 말 한마디면 차고 넘치는 지식을 내 귀에 들려주고 보여주는 AI 시대다. 몰라서 못한다고는 더 이상 핑계 댈 수 없는, 그래서 지식 자체보다는 그 넘치는 지식을 어떻게 조직화하고 활용하는 창의적 사고가 요구되는 시대인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강조하시듯, 배움의 끝은 실천! 배워서 알고 깨달은 사실이나 지식을 얼마나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가 하는 점이 관건이다.

목사님은 춘계산상집회를 통하여 우리
삶의 기반시설이라 할 수 있는 영적 인프라로서 방언기도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하셨고, 나아가 예배 때마다 회중석을

근래 매 예배나 집회, 기도회 막론하고 방언기도를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신다. 그러나 결국 실천은 내 몫이다.

“나는 다른 방법을 모릅니다. 내 주인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고, 귀신 쫓고, 말쑥을 실천하러 애쓰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 이역만리 타국에 이 노구를 이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며 감사와 격려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김없이 기도의 무릎을 꿇습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내 목회 40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반복, 반복, 반복 적용하고 실천해온 시간이었습니다. 반복이 달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각 분야의 세계적인 인물들을 보세요. 세

몰입해서 파고들지 않으면 그 분야의 정점에 다다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정말 성령이 탄식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듯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방언기도 하세요. 주의 종들에게는 아침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기도하라 합니다만, 여러분은 적어도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기도해보세요. 막힌 것이 풀리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가난과 고통과 질병이 떠나가고, 여러분에게 지혜가 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제발 나를 닮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샘플 아닙니까? 글쎄, 나는 다른 방법을 모른다니까요.”



춘계산상집회(4월 28일~5월 1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누비시며 실제로 방언기도를 1시간 넘게 시키셨다. 모니터로 비치는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에는 목사님의 손이 머리에 닿자마자 마치 독이 무너지듯 방언기도가 폭포수처럼 터져나오는 장면도 있었다. 우리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성령을 받고 그 넘치는 기쁨으로 기도하던 첫사랑 시절의 장면을 기억한다면, 목사님이 왜 방언기도를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잘 알 것이다. 목사님이 고백하시듯, 목사님의 목회 40년을 지탱해온 영적 인프라는 방언기도였기에, 예수 믿고 잘 나가던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고 방언기도마저 떨어져 피폐한 삶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며 그들의 무너진 영적 인프라를 재건시켜줘야겠다고 작심을 하신 듯, 목사님은

계적인 피아니스트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루 10시간 반복, 반복해서 연습한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축구선수나 야구선수, 반복해서 공을 차고, 반복해서 배트를 휘두르고 공을 던진다고 합니다. 한때 골프 황제로 불리던 타이거 우즈가 뭐랬습니까?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주변이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세계가 안다고 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매일 매일, 골프채를 휘두르며 반복, 반복, 달인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연습하고 또 연습했더니 세계 골프계를 주름잡는 선수가 된 것 아닙니까?

미치지(狂) 앓고서는 미칠(到) 수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에 미칠 정도로

우리가 새해 들어 노랑진 교육관에서 시작한 저녁기도회가 벌써 4개월을 넘어섰다. 목사님은 1992년 메인스타디움 집회를 준비하기 위해 6개월을 기도하셨다며, 멈추지 말고 계속 이 기도의 습관을 계속해간다면 반드시 이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 각자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셨다.

올해 전대미문의 역사는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속에 이미 꿈틀거리고 있을 것이다. 그 역사를 맞볼 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배움을 실천하여 반복, 반복하는 사람이다. 왜냐?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한은택 목사

노량진 교육관 기도회

*** 노량진 드림스퀘어 D동 3층**

*** 매주 월, 화, 목, 토 저녁 8시**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행2:1~4)



방언기도는 내 삶의 기반을 튼튼하게 해준다

“목사님, 건강 비결이 뭐예요?”
“방언기도입니다.”
“목사님, 목회 성공 비결이 뭐예요?”
“방언기도입니다.”
“목사님처럼 지혜로우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언기도 하세요.”
맞습니다. 방언기도가 오늘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하루 4시간, 집회 때면 7시간 이상을 기도하는데, 그중 80% 이상을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기도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까지 버틸 수 없었으며, 지금까지 일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하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전14:18)고 말했지요? 저도 그래서 방언기도를 많이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정말 방언기도를 많이 하면 좋냐고요? 말하나 마나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성령을 받았다는 외적 증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20여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 일심으로 기도할 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서로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사

방언기도는 영적 기반시설이다

도행전 10장에도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이 임하니 모인 자들이 다 방언을 말했다고 했습니다(행 10:46). 즉 방언은 성령을 받은 표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상의 선물이 성령인데, 그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이니 방언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니 더욱 좋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가 넘치도록 복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내 뜻대로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니 방언기도가 더욱 좋은 것입니다.
그럼 방언기도가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방언기도는 영적 기반시설입니다. 선진국에 가보면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기, 통신 등 사회기반시설을 통틀어 ‘인프라’라고 하는데, 이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사회 각 분야가 더욱 발전하는 거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70년대에 독일을 방문했을 때 아우토반(고속도로)을 보고 ‘고속도로가 있어야 사람뿐 아니라 물류 이동도 빠르고 원활하겠구나.’ 생각하고는 귀국하여 서둘러 경부고속도로를 계획하고

착공했던 것입니다. 물론 반대도 만만치 않았지만, 박 대통령은 직접 보고 왔기에 강경하게 그 계획을 밀어붙였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 인프라 구축의 시발점이었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기초가 되었습니다.
우리 영·혼·육이 발전을 꾀하는 것도 영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방언기도는 영적인 삶 전체를 떠받치는 근본적인 기반이요, 구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요? 방언기도는 최고의 통신망입니다. 요즘 인



총회장 이초석 목사

프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터넷과 통신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해외집회에 나가면 아무도 안 만나고 호텔 바닥에 수건 두어 장 깔아둔 채 오직 기도만 하는 이 유가 그것입니다. 전투에 승리하려면 충분한 무기가 준비되어야 하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심도 능력을 덧입은 후, 곧 무기를 받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안식일을 두 번이나 여겨가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쳤습니다(행2).
또한 방언기도를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옵니다(약1:5). 저는 상담을 하다가 제가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조용히 방언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사 일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셋째, 방언기도는 내 육체와 내 사업터의 도난방지입니다. 누가 우리 사업을 망하게 합니까? 누가 우리 육체를 병들게 합니까? 누가 우리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까? 귀신입니다. 그것들은 호시탐탐 우

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행1:8).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엡6:12). 그래서 늘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하는데, 그것은 성령 충만을 입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면 권능이 임합니다. 이는 곧 최상의 무기를 지원받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마12:28). ‘성령을 힘입어’ 우리의 주적인 귀신을 내쫓는다고 했는데, 성령을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방언기도입니다.

제가 해외집회에 나가면 아무도 안 만나고 호텔 바닥에 수건 두어 장 깔아둔 채 오직 기도만 하는 이 유가 그것입니다. 전투에 승리하려면 충분한 무기가 준비되어야 하거든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당부하심도 능력을 덧입은 후, 곧 무기를 받고 전쟁터에 나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안식일을 두 번이나 여겨가며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여 그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고,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을 고쳤습니다(행2).
또한 방언기도를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가 옵니다(약1:5). 저는 상담을 하다가 제가 해결하기 어려울 때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조용히 방언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사 일을 해결하게 하십니다.
셋째, 방언기도는 내 육체와 내 사업터의 도난방지입니다. 누가 우리 사업을 망하게 합니까? 누가 우리 육체를 병들게 합니까? 누가 우리 가정을 깨트리려고 합니까? 귀신입니다. 그것들은 호시탐탐 우

리에게 침입하려고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불이 밝으면 도적이 들어오지 못하듯,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자는 영적 불이 환하게 켜져 있기 때문에 절대 귀신이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벧전5:8~9)고 한 것입니다.
넷째, 방언기도는 전염병을 막는 백신주사입니다. 기도원집회를 할 때마다 수십 마리 돼지를 보내주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목사님이 부르신 찬송과 방언기도를 녹음해서 계속 틀어주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몇십미터 앞에까지 구제역이 와서 다른 돼지 농가는 돼지를 폐사해도 이 성도님네는 끄떡없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방언기도는 내 앞길의 장애물을 제거해주는 탐지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세계 70여 개국에 다니면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것은 바로 방언기도 덕분입니다. 제가 앞날을 어찌 알겠습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기에(롬8:26) 어떤 함정에도, 어떤 울무에도 걸리지 않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언기도는 하나님과의 비화폰이다

갑자기 방언기도가 나올 때는 ‘왜 이러지?’ 하지 말고, 방언기도로 부르짖으세요. 내가 알지 못한 장애물이 앞에 있더라도, 방언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것이 제거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방언기도를 하면 인격도야가 이뤄집니다. 성령이 내주하시는 자에게는 인격적 변화와 특성이 나타나는데, 이는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때문입니다(갈 5:22~23). 성령을 받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 쓴 바울의 변화된 모습, 그리고 이초석 목사의 변화된 모습을 보세요.
이 좋은 방언기도를 왜 안 합니까? 얼마 전 큰돈을 날린 기업인을 만났습니다. 저는 그 분에게 “방언기도를 잃어서 그런 겁니다.”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방언기도를 입에 달고 살던 사람이 좀 이랬다고 느낀 겁니다. 그러니 당할 수 밖에요. 여러분, 배움의 끝은 실천입니다. 내 삶이 윤곽하려면 방언기도 하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엡6:18). 할렐루야!

국익 우선의 일관성 있는 외교전략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2024년 미국은 무역적자, 9,184억 달러, 정부의 재정적자는 1조 8,330억 달러, 그리고 연방부채의 이자금액만 1조 1,330억 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수출액 대비 29%의 무역수지 적자와 GDP 대비 3.1%의 이자비용은 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갖고 있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라면 재무구조 개선의 문제를 이대로는 방치하지 않으리라 단언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갑작스러운 고관세 정책을 발표했다가 철회하는 등, 자국은 물론 전 세계 자본시장에 큰 변동을 일으켰고, 명목이 아니라 실질 성장의 둔화와 예상되는 관세효과는 상대국의 통화 가치를 상승시켜 달러화 약세를 실현함으로써 경상수지 개선은 물론 국제에 대한 이자부담까지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합니다.

또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들이 미국 국채를 인수하도록 유도하여 연준이 금리를 낮추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금리가 하락되는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 외국의 첨단 혹은 전략부문 생산업체들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였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와 같은 차세대 AI 인프라 구축사업을 외국과 국내의 민간이 주도적으로 투자하도록 하여 국가재정의 부담을 크게 축소시켰습니다.

현재의 추세를 보면 단기간에 고용상태가 개선되거나 소득 혹은 부에 대한 균형적 재분배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이번이 없는 한 단일패권의 지위는 아니더라도 최강국의 지위는 계속 유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 대미 수출 의존도가 높았던 국가일수록 미국보다 강력한 산업 경쟁력을 갖추어야만 지속 가능하게 되었고, 중국은 미국과 이념이나 정책 부문에서는 경쟁할 수 없지만, 빠르게 완성되어 가고 있는 첨단 기술 집약산업의 생산능력은 미국을 압박하고 있기에 현 트럼프 정부는 육참골단(肉斬骨斷)의 자세로 중국에 대한 봉쇄전략(containment strategy)을 전 세계에서 펼치면서 미국과 중국의 중간에서 실리를 취하던 멕시코, 캐나다, 독일 등에 대해서 중대한 징벌적 압박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부터 미국의 인공지능 특화 기업들은 대일본 투자 확대의 중요한 동기를 첨단산업과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그리고 로보틱스 생산에 대한 제조기반 구축이 결정적인 강점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일관성 있고 분명한 일본의 대미 외교전략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은 '명확하지 않으면 토해버린다'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고, 총회장 목사님은 지난 40년에 걸쳐 신앙에 있어 단 한 번도 타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외교전략도 일관성 있고 분명하게 오직 국익에 따라 결정,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윤석

:: 빛과 소금 ::

내 생애 첫 마라톤

학교에 다니던 시절, 내가 가장 두렵고 피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오래달리기였다. 평소에 달리기를 할 일도 거의 없었고, 체력도 약했기 때문에 오래달리기 시간이 다 가오면 걱정이 태산이었다. 선생님이 무서워 안 할 수도 없고, 반 전체가 함께 출발하니 도망갈 곳도 없었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내 상황을 아는 친구들의 배려로 제일 앞에서 출발했던 것 같다. 하지만 결국에는 늘 제일 뒤에서 허덕이며 달리고 있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뛰어야 하나...', 한 걸음 한 걸음이 버거울 때, 누군가 내 손을 잡고 친구들을 앞질러 함께 뛰기 시작했다. 바로 우리 반 육상 선수였다. 그의 도움 덕분에 나는 무사히 오래달리기를 마칠 수 있었다. 얼마나 고마웠던지, 지금도 그 친구의 외모가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만큼 나는 달리기와 별로 친하지 않았다.

세월이 한참 흐른 후에도 달리기를 운동삼아 해본 적은 없었다. 그런데 작년 말쯤, 체력의 한계를 절실히 느끼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슬로우 러닝이라도 10분씩 해보자며 시작하게 되었다. 10분, 15분, 그리고 30분... 두세 달이 지나자 조금씩 몸의 변화가 느껴졌고, 러닝이 재미

있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청장년부의 한 집사님이 "이왕 운동하는 거, 마라톤에 한 번 도전해보는 게 어때?" 하고 권유했다.

마라톤은 나에게 있어 감히 상상도 못했던 큰 도전이었다. 나와는 무관하다고만 여겼던 일이 어느새 현실적인 목표로 다가왔다. 큰 결심 끝에 내 생애 첫 마라톤을 신청했고, 부담과 긴장이 있었지만 목표가 생기니 하루하루 더 열심히 뛰게 되었다.

대회 당일, 하루종일 비가 온다는 예보에 함께 기도했더니, 오전 비 소식이 흐림으로 바뀌고 현장에는 해가 떠 있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목사님께 배운 '믿음의 기도'가 이렇게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다.

매일 혼자 뛰다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출발하니, 거리도 더 짧게 느껴지고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5km를 무사히 완주할 수 있었다. 마라톤이라는 첫 도전에서 자신감도 얻고, 짜릿한 성취감도 맛보았다. 이제 '다음 목표는 10km로 해볼까?' 하는 당찬 말도 주고받으며 웃을 수 있게 되었다.

도전하는 삶은 이름답고 행복하다. 축복 역시 침노하는 자의 것이 아닌가!

송지혜 집사

얼마 전 교사찬양예배를 준비하면서 밤늦게까지 연습을 했었습니다. 교사 중 세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가 있었습니다. 연습은 대성전에서 진행되었고, 아이들은 사무실에 있었는데, 제 파트 연습이 끝난 후 사무실에 들어가니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더군요. 저녁을 먹었는데 연습이 길어지다 보니 배가 고프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먹을 것이라도 사주려고 아이들을 데리고 편의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밥으로 먹을 것은 안 고르고 과자만 고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과자도 같이 사줄 테니까 배부를 것으로 골라라' 이야기하니 가장 큰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밥은 우리 엄마가 줄 거야." 엄마랑 통화했는지 물어봤는데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으니깐 밥도 같이 골라서 먹자'고 거듭 이야기했는데도 이

아이들이 반복해서, "밥은 우리 엄마가 줄 거야."라고 해서 결국 과자와 음료수만 사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미 밤 10시를 향해 가고 있었고, 연습이 계속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저는 '엄마가 밥을 챙겨주는 게 쉽지 않을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의 눈에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자기의 필요를 엄마가 당연히 채워줄 것이라고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자녀 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할 모습이 바로 이 아이와 같은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 말입니다(마6:25~34).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한다면 우리가 더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예수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올해는 그 권세를 가지고 모두 전대미문의 복을 받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윤예녹 성도



:: 소망의 언덕 ::

비하인드 스토리

윤은경 권사님께서 기도원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여러 합병증으로 고통이 극심하셨지만,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시던 권사님은 가장 아름다운 때에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교단의 모든 교우들은 유족인 최 집사님과 주미, 성주에게 큰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배 때마다 '아버지'라 부르며 목사님을 찾던 권사님의 마음을 기억하신 총회장 목사님께서, 아버지 된 심정으로 모든 장례 절차를 주관하셨고, 모든 행정과 재정까지 책임지셨습니다.

저는 주미와 성주의 중고등부 시절 담임으로 인연이 있었기에 발인 예배부터 안장 예배까지 함께하였고, 윤 권사님의 감춰진 삶의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를 듣고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시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이야기입니다.

27년 전, 권사님이 결혼하실 당시 주례를 맡으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약 700쌍의 부부 주례를 서셨지만, 권사님 같은 분은 처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면 권사님은 여김없이 전화를 걸어 '결혼을 축복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식사를 대접하셨다고 합니다. 목

사님께서 '행복하게 살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렇게 매년 감사를 잊지 않고 표현해주는 분은 권사님 한 분뿐이었다.'고 하셨습니다. 26년 동안 변함없는 감사의 표현은 마음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권사님의 삶을 더욱 깊이 있게 바라보게 했습니다.

또한 장례 일정의 마지막, 유골함을 안장하던 순간 총회장 목사님께서서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미와 성주야, 너희 엄마가 예배 때마다 나에게 뭘 가져왔는지 아니? 검은 비닐봉지에 영비전, 박카스 같은 음료수와 빵 몇 개를 넣어 매년 내게 가져오곤 하셨단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기쁘게 받으셨겠니."

마치 사도행전의 다비다가 죽었을 때, 여인들이 베드로에게 다비다의 선행을 이야기했던 장면처럼, 권사님의 삶도 그러했습니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머물던 곳에 그리움을 남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움을 남기고 간 윤 권사님을 보며, 나는 과연 천국에 가게 된다면,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회자될까 생각해봅니다.

이현승 목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



신학원에 입학한 지도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30년 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바로 순종하였다면 지금 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면 요즘은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요나 같은 존재였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여러 사인을 보내셨다. 처음엔 가정을, 두 번째에는 건강을, 세 번째에는 물질을 치셨다. 완악했던 나도 이 세 가지 채찍엔 속수무책이었다. 수시로 운전하면서 그대로 강물로 들어가고 싶은 유혹과 교통사고라도 나서 죽어버렸으면 하는 생각이 수없이 들었다. 이런 생각이 극에 다다랐을 때, 이시대 목사님께서 수요일예배에 욥의 고난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한없이 울었다. 그리고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하루를 살더라도 24

시간 온전히 세상일 뒤로하고 말씀과 기도만 해보고 싶어요!’ 하는 소망이 생겼다. 마음을 고쳐먹었더니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방에 살던 나는 주변 예수종교 회를 찾기 시작했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내 맘에 성에 차지 않았다. 총회장 목사님이 계시는 서울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생각이 들었다. 금요일 퇴근하면 바로 서울로 향했다. 왕복 8~10시간의 시간도 내겐 길지 않았다. 그렇게 하기를 1년,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다. 총회장 목사님께서 저녁에 전화하실 거란다. 무슨 일인지 싶어 긴장되었다. 상담 신청을 한 적도 없고, 더더욱 통화해본 적도 없었던 나였기에 긴장하면서 계속 기도했다. 드디어 통화, 총회장님 목사님 첫 말씀? “너 신학원에 온다며?”, “어떻게 아셨지? 말씀드린 적도 없고, 주변 사람들에게 말한 적도 없었는데... 나중엔 안 사실이지만, 인천의 어느 전도사님께서 내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니 상담 신청을 하셨단다. ‘뭐든 다 버리고 올 수 있느냐’는 목사님의 말씀에 ‘네’하고 대답했다. 목사님은 주일 3부예배 시작 전 방송실로 오라 하셨다.
이틀 후 일찍 방송실로 갔다. 목사님은 내게 같은 질문을 세 번 하셨다. ‘모든 것을 버리고 끝까지 갈 수 있느냐?’ 그 순간 총회장 목사님의 눈을 바라보는데 사람 눈이 아니었다. 레이저로 나를 스캔하시는

듯 광선이 일직선으로 쏘는 듯했다.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였다. 나는 ‘네’ 하고 세 번의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하였다.
그러나 현실로 와보니 지금 내가 안고 있는 문제들이 큰 산처럼 다가왔다. 지금껏 내가 투자하고 노력해서 얻은 학위들과 자격들, 그 결실을 누리보고 싶었고, 대학에서 한국무용을 전공하는 딸아이 졸업 때까지는 살피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 딱 3년만 연기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리고 아직 저에게는 말씀도, 꿈도 주신 적 없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게 진정 맞다면 세 가지를 주세요. 꿈과 말씀과 해매지 않고 갈 인생의 표어를 주세요.’ 추운 겨울 아무도 없는 교원사택에 난방텐트를 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루 이틀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었다. 그런데 일주일일이 되던 날,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6장 3절에서 16절 말씀을 주셨다.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이다. 머리와 마음을 강력한 도구로 강타당한 것 같았다. 그럼 말씀을 주셨으니 이번엔 꿈으로 보여 달라 기도했다. 이를 후 꿈으로 정확히 보여주셨고, 표어까지도 주셨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깨닫고, 깊이 회개하였다. 부르심에 순종하여 신학원 원서를 제출하고 나니 총회장 목사님을 비롯해 이시대 목사님, 여러 교수 목사님들의 제자

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지방에서 거주하고 있는 나는 신학을 다하려면 거처할 곳이 있어야 했고, 서울교회에서 봉사하고 싶어 기도만 했다. 한 달 뒤 하나님께서는 거처할 장막부터 섬겨야 할 교회까지 인도해주셨다(고전2:9~10, 신 11:26). 하나님은 나를 수원교회로 보내셨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서울교회에서 섬기며 봉사하고 싶은 미련이 남아있었다. 3일 금식기도와 작정기도를 하는데,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으로 나를 깨우치셨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그동안 수원교회에는 목사님을 비롯해 성도님들도 주의 일꾼을 보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셨다고 한다.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를 충성되이 섬기고 있다. 수원교회에서 교육부와 대학청년부를 맡으며, 신학원에서도 임원으로 열심히 섬기며 성장하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복하고 나아갔더니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다.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이 무엇보다 더 값지며 행복하다.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하심이 늘 나와 함께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양은정 성도

Good News

“한 번 나면 두 번 죽고, 두 번 나면 한 번 죽습니다.”
거듭남이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은 성령님을 통해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입니다. ‘한 번 나면 두 번 죽는다.’는 말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한번 경험한 후에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처해지는 두 번째 죽음, 즉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두 번 나면 한 번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

접함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남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듭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에만 집중하며 거듭남의 필요성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후 준비보다 사후를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이나 신앙의 연륜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자신의 공로를 쌓으며 자기 나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종교인이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야 영생복락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요3:3).

상화평 목사

:: 치우치지 않는 저울 ::

지키는 것과 바꾸는 것

일본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와 그 속에서 지키는 것과 바꾸는 것의 균형, 그리고 장인정신과 혁신정신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본다.
일본 문화와 한국 문화의 차이를 보면, 일본은 전통을 매우 소중히 여기며 장인정신으로 몇백 년의 가업을 이루며 사는 반면, 한국은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는 문화이다. 한국의 식당을 하는 부모는 자식이 식당을 하겠다고 하면 펄쩍 뛰며 “내가 너, 이 일 시키려고 이 고생한 줄 알아?” 하며 서울로 보낸다. 그러나 일본은 가업 잇는 것을 지지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옛것을 기억하라’는 말씀과 ‘새것을 창조하라’는 말씀을 동시에 주신다.

“보라 나는 새 일을 행하리라”(사43:19). 이 말씀은 변화와 새로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라는 격려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나 삶의 자리에서 지키는 것과 변화시키는 것의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은 우리에게 전통을 소중히 여기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롭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신다.
“그러나 너희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라”(골3:10)
이 말씀은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우리는 전통과 장인정신의 교훈을 소중히 하면서도, 시대와 환경에 맞게 변화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이는 마치 장인들이 전

통 기술을 계승하면서도 새로운 도구와 방법을 도입하는 것과 같다.
일본의 장인정신은 ‘끊임없는 수련과 정성’을 의미하며, 한국의 혁신정신은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도전’이다. 두 문화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치이다.
총회장 목사님은 목회자 세미나에서 “초대교회의 말씀과 능력을 잃지 않고 Ai의 지식을 활용해 시대에 뒤떨어지지 말아야 말세지말의 시대를 견인해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Ai를 두려워하며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시대를 이끌어 갈 것인가? 책도 Ai를 활용하니 하루 만에 만들어지고, 음악도 나의 취향과 생각을 설명하면 작곡도 몇 분 안에 만들어진다.

나중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질 것 같으나 기도와 깊은 묵상을 통한 영감(in-spiration)은 만들어내지 못하리라. 귀신은 쫓지 못할 것이고,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창의력은 못 쫓아올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만의 말씀의 능력을 지키고, Ai를 활용해 끊임없이 혁신한다면 충분히 이 시대를 이끌고 갈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여러 종류의 Ai로 세상은 무서울 정도로 바뀌고 있고 기존지식은 하루가 다르게 뒤쳐지고 있다. 이런 혁신에 뒤쳐지지 마시고 시대를 이끌어가기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5:17).

최연식 목사